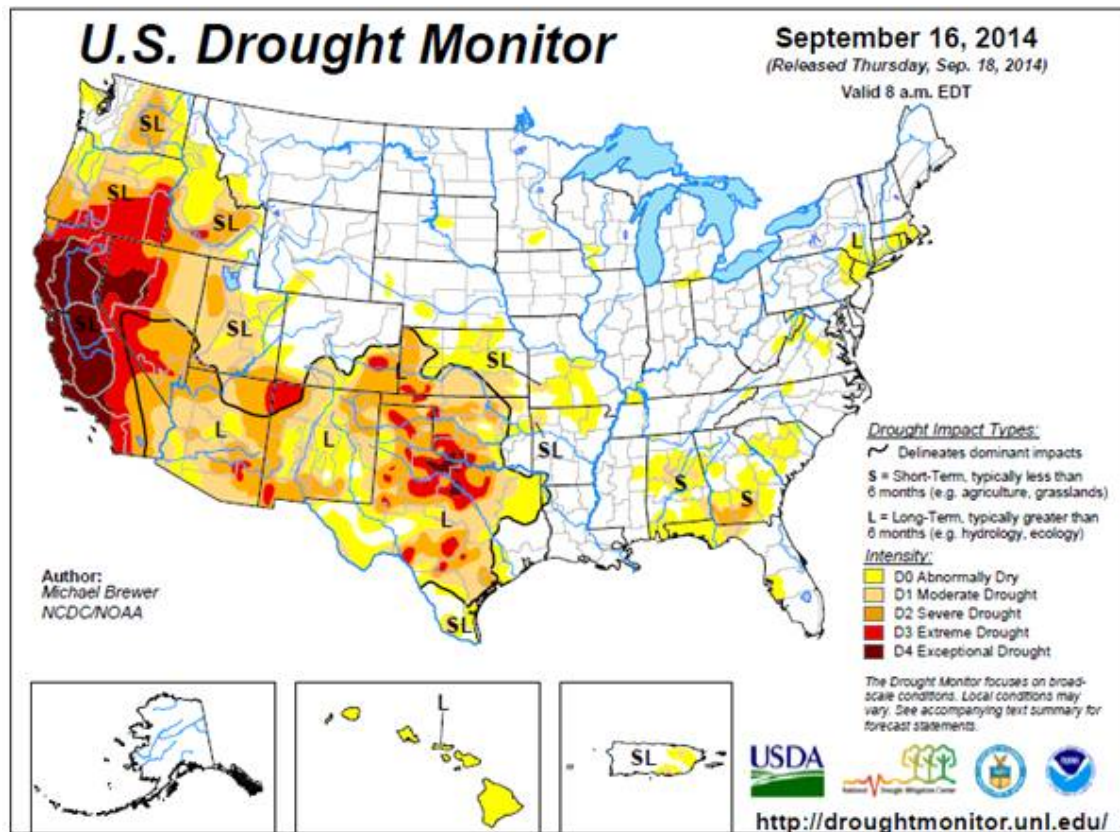


9월 2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38)

□ 미국 기후 현황(09/14~09/20)



동부 태평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Odile와 한랭전선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남동부 애리조나에서 텍사스 연안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4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비가 내려 심각한 가뭄은 해갈되었지만 홍수가 발생하였고, 목화의 꼬투리가 열리는 시기인 것과 더불어 다른 성숙된 여름작물들의 품질과 관련해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이었다. 걸프연안에서 남동부 하류지역에 이르기까지 국지적인 소나기는 동부지역으로 확장되었고, 토양수분은 충족되었지만 일부 미미한 수확작업에 방해가 되었다. 그러나 북부지역으로 갈수록,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작물의 성숙과 수확을 증진시켰다. 한편, 중서부 지역에서는 주 초반과 후반에 비가 그쳤고 한편으로는 차고 건조한 날씨패턴이 이어져 후기 생장중인 옥수수과 대두의 성숙도를 소폭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주 후반에는 중서부 지역에서 거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렸다. 중부 미시시피 계곡에서 북동부 지역에서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5-10°F정도 낮았다. 9월 중순에는 동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서부 지역에서는 생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9월 19일 뉴욕과

뉴잉글랜드 북부지역에서는 동해가 발생하여 생육기간이 마감되었다. 한편,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태평양 연안에서 북부와 중부 고원평야에 발생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북부 중산간 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적어도 10°F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밀 파종은 고원 평야와 북서부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매우 지연된 봄밀의 수확은 북부 평야 지역에서 거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 현황 요약(09/15~9/21)

중서부와 북동부지역에서는 한 주 동안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 인디애나, 북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6°F 기온이 낮았다. 한편, 서부지역인 네바다, 오리곤, 유타지역에서는 평년대비 평균 10°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다. 남서부와 플로리다 및 텍사스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강수량은 평균 1.5인치 이내로 집계되었다.

■ 옥수수

9월 21일 기준, 전국적으로 황숙단계(dent)에 진입한 옥수수는 90%p로, 전년동기 대비 동일하였고, 5년 평균대비 2%p 뒤쳐진 수준이다. 주말 기준, 성숙단계에 진입한 옥수수는 42%p로, 전년동기 대비 5%p 앞섰으나, 5년 평균대비 12%p 낮은 수준이다.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옥수수 수확량은 7%p로, 전년동기 동일한 수치이나, 5년 평균대비 8%p 낮은 상태이다. 미국 전체 옥수수의 상태는 74%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이며, 전년 동기대비 19%p 높은 수준이다.

■ 대두

9월 21일 기준, 전국적으로 낙엽(dropping leaves)현상을 보이는 대두는 45%p로, 전년대비 다소 앞섰지만, 5년 평균대비 8%p 뒤쳐진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미시시피 델타지역에서는 심각한 정도로 수확 진행이 제한되었지만,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대두의 수확이 시작되었다.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대두의 수확은 3%p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동일하고, 5년 평균대비 5%p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대두의 상태는 71%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주대비 다소 하락한 수치이지만, 전년 동기대비 21%p 높은 상황이다.

■ 면화

9월 21일 기준, 전국적으로 꼬투리가 열리는 현상을 보이는 면화는 58%p로, 전년대비 13%p 앞섰지만, 5년 평균대비 2%p 뒤쳐진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면화의 수확은 18%p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3%p 앞섰고, 5년 평균대비 다소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면화의 상태는 48%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주대비 다소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기대비 4%p 나은 상황이다.

■ 쌀

9월 21일 기준, 전국적으로 46%p의 쌀을 수확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2%p 높은 수준이지만, 5년 평균대비 7%p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연안지역의 생산자들은 수확을 완료하였다. 미국 전체 쌀의 상태는 74%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주와 동일한 수치이며, 전년동기 대비 3%p 앞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 세계 기후 현황(09/14~09/20)

- 유럽: 남동부 유럽에서는 국지적으로 비가 내렸고, 북서부 재배지역의 경우에는 한 주 동안 대체로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팽배하였다. 남동부 유럽지역에서는 느리게 이동하는 폭풍전선의 세력이 약화되었고 이는 동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다뉴브 강 유역에 추가적으로 10~100mm의 비가 내리게 하였다. 남동부 유럽의 경우 총 강수량은 50~200mm에 달하였고, 헝가리, 슬로바키아, 동부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100mm의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여름작물의 수확과 겨울 작물의 파종을 포함한 야외 농작업은 정체되었으며, 더욱 건조한 날씨는 주말 발칸반도에서 정착되었다. 한편,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평년대비 2-5°C 이상 높음)는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한 주간 지속되었으며, 야외 농작업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소나기와 폭풍,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지역도 있었다. 남부지역으로 갈수록, 적정하거나 많은 양의 소나기(10-70mm)가 내려 토양수분과 서부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의 관개 보유량을 증대시켰다. 겨울 곡물들의 파종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11월경에 전통적으로 시작된다. 한편, 폴란드와 발틱주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겨울 작물의 파종을 촉진하였으며, 소나기는 이탈리아 지역에서 다가올 겨울 작물의 파종기(10월-11월)에 필요한 충분한 토양 수분을 유지시켜 주었다.
- 구소련(서부): 덥고 건조한 날씨가 전국에 나타나 빠른 속도로 야외 농작업이 진행되었으나, 남부 러시아에서는 많은 양의 강수량이 필요하였다. 모르도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서부 러시아에서는 맑은 날씨와 평년대비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으로 인해, 여름작물의 수확과 가을밀의 파종을 촉진하였다. 한편, 소나기와 폭풍(5-50mm)은 남부 러시아에서 가을밀의 수확에 필요한 토양 수분량을 향상시켰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에서는 차고 건조한 날씨가 팽배하였으며, 옥수수과 대두의 성숙이 예년에 비해 빠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일반적으로 작물들은 9월에 충전을 시작하고 성숙기에 접어든 작물들이 10월 초순경 가을 들어 처음 동해가 발생한다. 남부지역에서는 베트남 국경지역에 이르기까지 태풍 갈매기가 상륙하여 초속 70노트가 넘는 강풍을 발생시켰다. 여름작물 재배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하였다. 중국 북부지역에서는 150mm가 넘는 비가 대두와 땅콩과 같은 여름작물의 성숙과 수확을 지연시켰으나 성숙기에 접어든 면화와 생산량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양쯔강 유역인 서부 지역에서는 50-100mm의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이는 후기 작물인 쌀에는 충분한 토양 수분을 공급하였지만 여름작물의 성숙과 수확은 지연시켰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쌀의 성숙을 위한 대체로 서늘하고 건조한 날씨가 팽배하였다.
- 호주: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밀 벨트지역에 팽배하였으며, 미성숙한 겨울 곡물과 유채에 필요한 충분한 수분 공급을 감소시켰다. 비록 호주 서부지역에서는 비가 내려 환영 받았을지라도, 맑은 날씨와 적당한 수분공급은 밀, 보리, 카놀라의 생육을 촉진하였고, 대체로 작물의 생육상태를 좋음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호주 남동부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고 시기에 적합하지 않아, 재생산을 위한 겨울 작물의 수확 전망을 서서히

최저하게 하였다. 추가적으로 남부 빅토리아와 남부 뉴사우스웨일스와 같이 고립된 지역에서는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으며, 국지적으로 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북부 뉴사우스웨일스와 남부 퀸즐랜드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초반에 파종한 겨울 작물의 성숙도에 도움을 주었다. 이 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비가 요구되었고, 토양 수분과 관개 수요가 재충전되었다. 남부와 동부 호주에서는 평년대비 비슷한 기온이 형성되었고 서부 호주에서는 평년대비 기온이 1-3°C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르헨티나: 남부 농업지역에서는 대체로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추가적인 수분 공급으로부터의 안도를 가져왔지만, 소나기는 남동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아직 수확되지 않은 면화의 경우에는 근심이 증가하였다. 북부 Buenos Aires와 북부 Corrientes 지역의 총 강수량은 10-50mm이었다(국지적으로 100mm이상인 곳도 있었음). 남부 Cordoba 지역에서는 적당한 비(10mm 이상)가 내지만, La Pampa와 남부 농업지역인 Buenos Aires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옥수수의 수확과 밀 파종이 시작되었다. 중부 아르헨티나의 경우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2-3°C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낮 최고 기온은 20°C 초·중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지역으로 갈수록,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1-2°C 이상 높았고, 낮 최고 기온은 30°C 초반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9월 16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면화의 수확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으며, 북부 농업지역에서는 과도한 수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 많은 양의 비가 브라질 남부에 내렸고, 밀의 경우 계절에 적합하지 않은 수분이 공급되었지만 여름작물의 발아에 필요한 충분한 수분을 유지시켜 주었다. 최고 강수량(100mm 이상)은 서부 Parana와 인접지역인 Paraguay에서 기록되었으며, 북부 Rio Grande do Sul에서 Mato Grosso do Sul의 남부지역과 남부 Sao Paulo 지역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발표 자료에 따르면, 9월 16일 기준, 브라질 최대 밀 생산지역인 Parana에서 밀 수확은 29%p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많은 비로 인해 저조한 기록이었던 것으로 발표되었다. 대체로 건조하고 평년대비 따뜻한 날씨(평년보다 2-4°C 높음)가 남부 Mato Grosso에서 Minas Gerais 지역을 지배하였다. 사탕수수의 생육과 커피의 개화에는 계절적 강수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북부 대두 생산지역인 Mato Grosso와 Tocantins에서는 10-50mm의 비가 내려 파종을 위한 밭의 조건이 향상되도록 도왔다.